



[산업] 삼성·LG전자 가전 '청결 대전' 06



Economy

코스피 1834.33 (-73.94)	코스닥 563.49 (-32.12)
금리 (미국 3년) 1.06 (-0.02)	환율 (원·달러) 1206.50 (+13.50)(12일)

삼양, 지배구조 최하위

‘SY’통해 3세 꼼수승계

(페이퍼컴퍼니) (전병우)

증권재벌의 민낯

삼양식품 지배구조

(故)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의 창업스토리는 많은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삼양식품 창업주는 1960년대 초 서울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다 꿀풀이죽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민했다. 우리나라 라면 역사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창업주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인장 회장의 삼양식품은 과거의 모습을 잃었다는 평가다. 삼양식품의 지배구조는 ‘D등급’으로 평가받고 있고, 내부 견제 장치도 작동하는 지 의문이다.

1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양식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C이하’ 등급을 받았다. 총 8개 등급 가운데 7번째다. 지배구조 부문은 D등급이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

ESG 평가 줄곧 B 이하 받아 지배구조는 2년 연속 D 등급

전인성 씨, 추가급등때 지분매도 지난 1월 5만주, 50억 규모 팔아

SY캠퍼스, 페이퍼컴퍼니 의혹 전병우 지분 100%, 직원은 한명

◆ ESG 지수, 줄곧 낙제점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을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ESG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은 30조달러를 넘어섰다.

심지어 블랙록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대형 연기금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ESG 투자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높은 ESG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반면 삼양식품은 ESG에 개의치 않는 것일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등급 평가를 시작한 2011년부터 삼양식품은 줄곧 B이하 등급을 받아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C이하로 두 단계나 떨어졌다.

특히 삼양식품의 지배구조는 2018, 2019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 “브레이크 없는 내부 통제”

삼양식품의 대주주는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주식을 팔아치워 의문을

〈삼양식품의 ESG·지배구조 등급〉

년도	ESG등급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19	C이하	C이하	B	D
2018	B이하	B이하	B이하	D
2017	B이하	B이하	B+	B
2016	B이하	B+	B이하	D
2015	B이하	B이하	B이하	C
2014	B이하	B이하	B이하	C
2013	B이하	B이하	B이하	C
2012	B이하	B이하	B이하	C

던지고 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것은 투자자에게 회사의 주가가 고점이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전 회장의 쌍둥이 동생인 전인성씨는 거침이 없었다.

지난 1월, 삼양식품의 주가가 처음으로 증가기준 10만원이 넘는 날 전인성씨는 보유주식 7631주를 장내매도했다. 이후 6거래일 동안 총 5만주를 팔아치웠고, 해당기간 증가 평균을 기준으로 총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양식품 주가는 당시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다.

전인성 씨는 지난 2011, 2016년에도 삼양식품 주식이 급등하자 보유 지분을 매도한 바 있다.

아울러 3세 승계 작업을 위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바로 전 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스와이캠퍼스를 통해서다.

현재 삼양식품의 대주주는 삼양내츄럴스다. 그리고 삼양내츄럴스의 2대 주주는 지분 26.9%를 보유한 에스와이컴퍼스다. 해당 회사는 삼양식품의 지분도 1.67% 보유하고 있다.

삼양식품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에스와이컴퍼스는 직원도 고작 한 명. 회사의 주소지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13층이다.

이처럼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삼양식품의 주요주주가 존재도 불분명한 기업이 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사외이사 자리에 사실상 회장과 인연이 있는 인사가 왔기 때문이다.

현재 삼양식품의 사외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황순중 씨가 맡아오고 있다. 황 이사는 현대산업개발(현 HDC) 임원 출신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5년 전 삼양식품의 지분 25%를 매입해 ‘백기사’를 자처하면서 회사 간 친분관계가 알려진 바 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12일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면서 한때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94포인트 떨어진 1,834.33에 거래를 마치고 코스닥은 전장보다 32.12포인트 내린 563.49로 마감했다. 사진은 12일 오후 장 마감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팔고 팔고, 또 팔고... 금융시장 ‘팬데믹’

〈주식〉 〈원화〉 〈채권〉

외국인 8900억 주식 매도 코스피 장중 5% 이상 빠저 9년 만에 사이드카 발동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제와 세계증시 하락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식과 원화값 모두 폭락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며 주식과 신흥국 통화 등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73.94포인트(3.87%) 급락한 1834.33에 장을 마감했다. 905개 상장사 가운데 878개 종목(97%)이 하락했다. 외국인의 ‘코리아 포비아’는 여전했다. 외국인은 8952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54억원, 5361억 원씩 순매수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한때 1808.56까지 떨어지며 최종 방어선으로 여겨졌던 1800선이 붕괴될 위

기까지 몰렸다. 사이드카도 9년 만에 발동됐다. 코스피 200 선물이 일시적으로 5.06% 빠지면서다.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1분 이상 5% 이상 하락할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진 지난 2011년 10월 4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했다. 전일보다 32.12포인트(5.39%) 추락한 563.4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상장사 1346곳 가운데 1242개종목(92.2%)이 하락했다. 연이은 증시 폭락에 증권가에서도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특별조치와 함께 대규모 부양정책 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했던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

하며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하며 “코로나19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면 바닥이 더 내려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원화 가치도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며 달러당 1200원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3.5원 오른 달러당 1206.5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5일(17.3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적격담보 증권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하는 적격담보증권 인정 범위를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

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연기... 인수 지연

HDC현대산업개발, 코로나19 악재 유상증자 발행가도 예상보다 낮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에 제동이 걸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거머쥘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난 것.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아시아나항공도 대부분 국제선이 비운항 조치되는 등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졌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에서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도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마무리 시한인 4월까지 인수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12월 27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고 컨소시엄은 당초 올해 4월까지 모든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총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산업개발이 2조101억원, 미래에셋대우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4899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해당 인수는 아시아나항공의 구주 6868만

8063주를 사들이는데 3228억원, 나머지 2조1772억원은 유상증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인수대상은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금호리조트 등이다.

문제는 최근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미 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인수자금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보유현금 5000억원 ▲유상증자 4000억원 ▲공모회사채 3000억원 ▲기타자금조달 8000억원 등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유상증자에서 한 주당 발행가격이 예상보다 낮은 1만4600원으로 책정되며, 유상증자액도 기존 3987억원보다 적은 약 3207억원이 됐다.

(6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